

# AI 교육에 창의·전문성까지... 미래 이끌 디지털인재 육성

## 2025 사이버대 가이드

### 경희사이버대학교

국내 최초 사이버대, 혁신교육 선도 교육부 교육혁신 지원사업 선정 첨단기술 적용한 교육행정 시스템 신·편입생 98% 장학수혜 등 지원



경희사이버대 전경.

경희사이버대학교(총장 변창구)는 경희학원이 2001년 설립한 대한민국 최초의 사이버대학으로, 7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경희대와 다양한 학문적 교류와 협력을 지속하면서 혁신적 교육 노하우를 쌓아왔다.

2025학년도에는 학부(과) 개편·신설을 통해 AI, 빅데이터, 스포츠 비즈니스와 첨단 전자 정보 기술, 다문화 사회와 글로벌 자율 학습 등 현대 사회의 핵심 요구를 반영한 교육 과정을 선보인다. 학생들은 단순한 이론 학습을 넘어, 실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융합형 능력을 기르도록 설계된 교육을 통해 각 분야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다.

경희사이버대는 2025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을 9개 학부, 35개 학과

(전공)에서 오는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월 14일까지 진행한다.

◆'글로벌자율학부' 등 학부 개편·신설 2025학년도에 신설되는 전자정보공학과는 차세대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다룬다. 학생들은 실무 중심 커리큘럼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게 된다.

마케팅·리더십경영학부의 AI·빅데이터경영전공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경영 전략을 학습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며, 최신 데이터 분석 도구와 AI 활용법을 교육한다.

이주배경 성인학습자의 사회적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자율학부도 신설된다. 이주배경 자녀,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 교육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습 지원 체제와 장학 제도를 운영한다.

◆교육부 평가 3회 연속 최우수대학 선정 경희사이버대는 2007년 원격대학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대학(A등급)으로 선정된 이래, 2013년과 2020년에도 연이어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되며 3회 연속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교육부가 주관한 원격대학 인증·역량진단은 원격대학의 경영, 교육환경, 교육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경쟁

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한, 경희사이버대는 2007년 원격대학 특성화사업을 시작으로 ▲2013년 사이버대학 선취업-후진학 특성화사업 ▲2015년 사이버대학 교수-학습 우수사례 공모전 교육부장관상 수상 ▲2018년 성인 학습자 역량 강화 교육콘텐츠 개발 사업 등 여러 국가 재정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2024년에는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주관하는 '2주기 원격대학 교육혁신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AI 기반 교육 혁신으로 미래 대학 선도 경희사이버대는 급변하는 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10월에 첨단 기술을 적용한 사용자 중심의 지능형 교육·행정 플랫폼인 '차세대 교육행정시스템'을 오픈했다.

또한, 경희사이버대는 온라인 교육의 핵심인 '수업'과 '콘텐츠' 전반을 혁신하는 'KHCU 혁신형 교육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혁신 사업은 AI(인공지능) 기술을 교육에 적용해 기존 온라인 교육 방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폭넓은 장학 수혜, 경희가족 복지 혜택 경희사이버대는 학생들의 학습의지를 고취시키고 학업에 의지가 있는 학

생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폭넓은 장학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024학년도 기준 신·편입생 98%가 장학 수혜를 받고 있다. 전업주부, 직장인, 여성가장, 농어민 등 약 40여개의 교내·외 장학금이 있으며 장학금별 조건 충족 시 수업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 이중 수혜도 가능하다. 또한 경희학원과 연계한 경희가족 혜택도 누릴 수 있어 졸업 후에도 경희대·경희사이버대 대학원 진학 시 동문장학을, 경희의료원·강동경희대병원 이용 시 의료비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현재 국내 우수 대기업·공기업 등과 탄탄한 산학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경희사이버대와 산업체 협약이 체결된 사업체에 재직 중이라면 전월료, 수업료 등에서 다양한 장학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삼성전자, 신세계, 롯데, LG 디스플레이, CJ푸드빌, 한식벽제그룹 등 총 약 800개 기관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으며, 장학혜택과 더불어 기관별 맞춤형 교육과정 공동 개발 및 운영으로 기관별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취업지원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세상 밖으로”...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지원

고립청년 발굴... 우울감 20% 감소 37%, 취업·진로 변화 등 자립 성과

서울시는 올 한 해 고립·은둔 청년 정책으로 1700여명을 발굴해 약 850명을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올해 용기를 내 서울시 사업을 신청했거나 지역사회를 통해 발굴된 고립·은둔 청년은 총 1713명이다. 이 중 사회적 고립 척도 검사와 초기 상담을 거쳐 온·오프라인으로 지원 받은 인원은 852명에 달한다. 이는 전년

대비 56% 증가한 수치다. 시는 사업 참여 전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년의 전반적 고립감이 20.3% 감소(평균 66→52.6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외적 자원인 자기 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척도도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자기 효능감은 19.7%(14.2→17점), 사회적 지지는 9.6%(20.9→22.9점) 상승했다. 우울감은 20.5%(19.5→15.5점) 줄었다.

전체 응답자 249명 가운데 사업에 참

여한 뒤 취업이나 진로 변화 등의 자립을 경험한 이는 92명(37%), 자격증을 새롭게 취득한 청년은 58명(23%)이나 됐다.

시는 이번 사업의 성과와 보완점을 분석해 내년에 업그레이드된 정책을 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관은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정책은 젊은이들이 세상을 향해 힘껏 도약하고 웅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ik1@

## 시민이 뽑은 서울시 정책은 ‘기후동행카드’

온라인 투표... 2위는 ‘손목닥터9988’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올 한 해 시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정책으로 뽑혔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 3~9일 실시한 ‘2024 서울시 10대 뉴스’ 온라인 투표에서 기후동행카드가 6만9821표(득표율 12.49%)를 획득해 1위를 차지했다.

온라인 투표는 서울시 출입기자단이 선정한 정책 10개를 대상으로 포털 사이트와 서울시 엠보팅, 서울시 외국어 누리집에서 진행됐다. 참여 인원은 18

만6388명이었으며, 총 득표수는 55만9164표였다.

2위에는 ‘손목닥터9988’(6만2690표, 11.21%)이, 3위엔 ‘서울야외도서관’(6만129표, 10.75%)이 이름을 올렸다.

시 관계자는 “대중적으로 시민의 일상을 풍족하게 만들며 한 해 동안 꾸준한 사랑을 받은 정책들이 높은 순위에 올랐다”고 말했다.

시는 시민 호응을 반영해 기후동행카드 적용 지역과 혜택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40 | 해질 / 17:15

12월 16일 (월)  
음력 : 11월 16일

수도권 날씨  
-4 ~ 4°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8/3, 동두천 -7/3, 가평 -8/3, 파주 -9/3, 서울 -4/4, 양평 -6/3, 용인 -2/4, 평택 -5/4, 인천 -3/4, 수원 -2/4, 백령도 1/6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안양시, 산모 건강 지원

안양시가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의 빠른 건강 회복을 돕고자 관내 산모 2258명에게 5만원 상당의 우수한 국내산 축산물꾸러미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시는 총 1억6350만원을 편성해 지난 4월부터 '맘튼튼 축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수 축산물꾸러미 지원으로 지역 축산업 활성화도 도모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안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산모이며, 거주증명과 자녀 출생증명이 완료된 외국인도 포함된다.

/안양(경기)=김대의 기자

## 인천시, 국비 5조8697억 확보... 역대 최대

내년도 예산, 올해보다 3846억 증가 철도사업 등 미래성장 위한 중요 역할

인천광역시는 2025년도 예산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국고보조금 5조 869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확보한 5조 4851억 원보다 3846억 원(7.0%) 증가한 규모로,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5조 원을 초과하는 국비를 확보했다. 특히,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정부예산안이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되어 국회에서 통과되는 유례

없는 상황에서도 전년도보다 더 많은 국비 예산을 확보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이번에 확보한 주요 국비 사업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3630억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 793억원 ▲인천발 한국고속철도(KTX) 350억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232억원 ▲노인 일자리 지원 1204억원 등이다. 이는 인천시의 미래 성장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김대의 기자 dykimi@

## 뉴스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바이든, 韓 권한대행과 통화...美 철통 같은 약속 재확인  
▲트럼프, 북한 문제 등 담당특사 발표...적극적 대북정책 의지 /사진 뉴스스

▲카라카스의 아르헨 외교단지의 베네수야당인사들, 안전한 대피로 요구  
▲블링컨, 대통령 탄핵가결에 “한국 민주적 회복력 보여줘” 평가



▲외신, K-Pop 응원봉 시위 조명...“韓 민주주의 희망” /사진 뉴스스  
▲이라크 총리, 시리아에 대한 외세의 내정 간섭에 “경고”